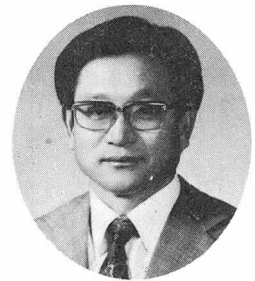


# 北漢山國立公園의 登山路毀損, 그 豫防과 整備策이 時急하다

禹 保 命

(서울大 農大 教授 · 農博 · 本會代議員)



## □ 北漢山國立公園地域의 주요 登山路

北漢山國立公園은 人口 1천만에 달하는 首都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都市公園의이고 遊園地의인 성격이 현저한 특징이 있다. 특히 山속으로의 接近進入路가 무수히 많고 登山路網이 자연발생적이지만 中 · 횡 · 순환식으로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울시민의 公園인 셈이다.

주요한 縱走코스에는 道峰洞-道峰山莊-觀音庵-牛耳洞, 牛耳洞-牛耳山莊-輔國門-舊基洞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는 北漢山登山路 코스중에서 가장 길어 하루 종일 걸린다. 東西를 잇는 橫斷코스로는 牛耳洞-白雲山莊-衛門-大西門코스가 좋다. 그리고 一般 登山客이나, 또는 하루 休樂을 위하여 山行을 즐기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循環코스에는 道峰洞-포대능선-五峰-牛耳洞코스를 비롯하여 5~6코스가 있다. 여기서는 牛耳洞(道洗寺)-白雲台-北漢山莊-輔國門-貞陵코스 의 登山路에 대하여 그 利用性 및 毀損實態를 검토하고자 한다.

牛耳洞에서 白雲台를 지나 貞陵에 이르거나, 또는 貞陵에서 出發하여 白雲台를 지나 牛耳洞코스로의 登山路는 北漢山國立公園地域內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여 항상 混雜한 山行길을 이룬다. 필자는 지난해 3월하순과 금년 4월하순에 이 登山코스를 따라 山行을 하면서 특히, 登山路의 毀損問題에 대하여 그 現況을 調査하고 對策을 생각해 본 것이다.

## □ 道洗寺에서 갈딱고개區間 登山路 주변은 林床裸出의 加速現象

牛耳洞 버스 중점에서 道洗寺入口 주차장까지 약 3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이 區間에서는 평일에도 워낙 통행인이 많고, 또 차량도 적지 않아서 交通安全에 신경이 여간 쓰이지 않게 된다. 道洗寺入口 주차장에서부터 北漢山頂을 향한 登山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갈딱고개까지는 路幅이 2m정도인데 대부분이 돌계단으로 조성되었지만 걸어 올라가기에 그리 힘이 들지는 않는다. 돌층계로된 등산로는 계곡의 自然的 地形에 따라서 自然發生的으로 形成되어 걷기에 재미가 난다. 登山路 주위 양쪽 산 허리에는 무단 침입자(?)들의 혹심한 踏壓作用으로 地被植生の 훼손 및 고사현상이 심하고 林床이 裸出되어 土壤浸蝕現狀이 加速化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登山路區間에는 登山路 兩側경계선을 따라서 줄(나이론 줄이나 코코팅된 철사와 같은 줄)을 설치하고 등산로 밖으로 나가서 숲속으로 들어가지말라는 안내간판 등, 간단한 시설을 설치해놓을 필요가 있다. 區間에 따라서는 산초나무, 진달래, 작살나무 등으로 유도식재하여 등산객의 林內出入을 통제해도 좋을 것이다. 때로는, 계곡부 적당한 개소마다 5~10㎡ 정도의 면적으로 가족단위용 휴식터(텐트터·식사자리 등)를 마련해 놓고 有料管理를 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山속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버너를 키고 불고기를 굽거나 고기찌개를 끓여 먹는 습성은 더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갈딱고개 마루에 도달하기 전 상당한 구간에서는 등산로의 경사가 매우 급하므로 숨이 차고 목이 갈딱거리게 된다. 갈딱고개마루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등산로폭이 협소해지고 급경사로 되어 路床浸蝕이 격심하고, 심지어 樹根露出이 현저할 정도로 훼손현상이 심하다. 갈딱고개에서 衛門까지 655m, 白雲台까지 955m, 제 21 야영장까지 50m라고하는 안내판이 비스듬히 서 있다. 제21野營場은 仁壽山莊아래에 위치하여 속칭 “인수야영장”이라 부르는데, 그 면적은 약 7,000~10,000m<sup>2</sup>정도로 비교적 넓고, 특히 인수봉등반의 전진기지로 이용된다. 여기는 화장실 위치 관계로 말썽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갈딱고개는 소위 “북한산 케이블카계획”으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論難이 되고 있는 바로 그 곳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제21 야영장 주위에서부터 갈딱고개부근의 森林毀損이 加速化되어 조속한 대책이 요망된다.(參照寫眞 1)



(사진 ① 등산로 훼손으로 인한 소나무의 뿌리노출)

### □ 白雲山莊주위의 自然保護要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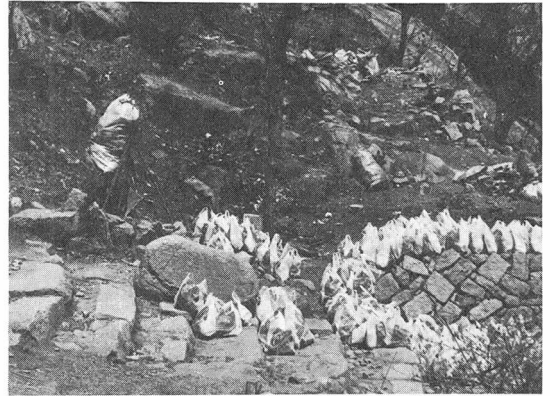
쓰레기운반 “검옹케블카” 생각해 볼일...

白雲山莊은 白雲山下部에 위치하는 1층 石造 콘크리트建物(30평정도)로 50여명을 대피 수용할 수 있다. 三角山 주변 岩峰등반자와 一般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 식사관개로 대단히 혼잡하며, 라면이나 국수등을 사 먹을 수 있다. 갈수기에는 食水不足이 문제되나 보통때에는 아주 시원한 샘물이 등산객들을 줄로 세운다. 白雲山莊 샘물과 그 바로 아래 계곡의 물을 集水하여 PVC 파이프나 호스를 이용하여 제 21 야영장에 귀중한 食水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白雲山莊앞에는 비교적 잘 다듬어 놓은 텐트치는 터가 몇군데 있으며, 특히 점심식사의 適所(地點)이기 때문

에 넘어 가는 사람과 넘어 오는 사람들의 合流點이 되어 대단히 混雜한 곳이다. 각종 등산용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보기에 매우 흉하였다.

山莊앞에는 책가방 크기의 비닐봉지에 쓰레기가 가득 가득 들어 있고, 그 옆에는 지계를 세워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알고보니 아주머니는 北漢山國立公園東部管理事務所의 직원으로 下山客중에서 이 쓰레기 담은 비닐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내려 갈 自願奉仕者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 ② 백운산入口 쓰레기 비닐봉지  
下山客에게 자원봉사 요구)

白雲山莊에서부터 산 위쪽으로, 衛門에서 白雲台꼭대기 주위, 그리고 北漢山莊에 이르는 높은 지대에서의 쓰레기 수거대책이 큰 문제거리인 것 같다. 쓰레기 수거시설로서의 검옹 케이블카도 생각해 보직하다. 標高 800m 부근에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쓰레기를 한 짐씩지고 다닐 사람은 그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어렵고 천하다고도 볼 수 있는 쓰레기담당 下位職 業務를 다음 세대에 가서도 계속하게 될 것인지? 冬期에는 춥고 미끄러워서 어떻게 운반해야 할지 두루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山莊이 주위의 환경정결이 중요시 된다. 갈딱고개에서부터 白雲山莊~北漢山莊間의 區間에는 “버너所持者 通行不可” 조치가 우선적으로 告示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登山도중에 점심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던 도시락을 꼭 지참하거나 山莊마다 들러서 사 먹을 수도 있다. 버너휴대 등산은 이제그만!!!

### □ 衛門에서 白雲峰 “浩然之氣의 場” 問題

白雲山莊에서 약 15분간 더 위로 올라 가면 衛門에 이

르는데, 여기서 白雲峰정상(836m)에 이르는 구간에는 큰 바위가 많아 이른바 바위景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바위의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바위틈에는 유리병(소주병이나 음료수 빈병)이 많이 박혀 있고, 등산로 옆에는 병마개와 음료수 캔 등이 많이 흩어져 덩굴며 밟히고 있다.

北漢山の 頂上인 白雲峰에는 비교적 넓은 바위면적이 있으므로, 北漢山을 登山하여 그들 나름대로 높은 산을 정복한 征服感, 成就感, 勝利感을 표현하고, 또 자기나름대로 體力의 可能性을 시험해 본 人生의 보람을 토해 낼 수 있는 고향의 場, 합성의 터, 浩然之氣의 場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國立公園利用施設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白雲台 頂上에서는 東, 西, 南, 北의 모든 方向으로의 眺望이 가능하므로 자기 발로 登山할 수 없는 사람들의 所願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衛門에서 西南쪽 方向으로 15분정도 내려 오면 露積峰(岩峰 708m)능선 등산로에 이른다. 이곳 陵線周圍의 등산로의 훼손이 아주 심하고, 휴지, 콩조, 빈병 등의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덩굴고 있다.

그러나 이 부근에는 봄철을 더욱 실감나게 알려주는 양지꽃(노랑색 네다섯 꽃잎)群落이 노랑병아리 떼와 같이 귀엽게 만개하여 볼 수록 예쁘게 느껴졌다. 땅에 붙은 듯이 납작한 키에 진노랑색 꽃잎을 보기 위하여 봄마다 이 등산 코스를 따라 山行을 한다해도 조금도 후회됨이 없을 것이다. 이토록 예쁜 양지꽃은 활엽수가 아직 잎이 피기 전에 나무사이 地被植生으로 양지바른 곳에 핀다. 잘 보호해야겠다.

### □ 北漢山莊주위 第17 野營場毀損擴大

北漢山莊 주변에는 第17 野營場이 있고 소규모의 運動場이 있으므로 배구나 간단한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또, 간이 화장실 1개소(8칸), 샘물, 안내판 등이 있다. 山莊은 2층 石造建物로 약 70㎡정도이며 收用人員은 40명정도이다. 北漢山 登山客이 주로 利用하고, 매점과 대피소가 있다. 第17야영장은 北漢山 野營場이라고도 하는데, 貞陵계곡이나 부근의 등산로를 따라 등산해 온 사람들의 점심 식사터, 취사터로 널리 사용된다. 마치 버려진 경진대회장처럼 자리를 잡고 불을 붙여댄다. 牛耳洞에서 등산한 사람들이 白雲山莊에 도달하면 점심때가 되듯이 貞陵계곡에서 등산한 사람들이 北漢山莊에 도달하면 꼭 배고픈 시간이 된다.

“第17 野營場은 靑少年用野營場이므로 사전에 신고를 필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양보하여 주기 바라며 또, 17야영장에는 쓰레기집하장이 없으니 자기가 가지고 下山하기 바란다”는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으나 읽어 보지를 않는지 곳곳에 쓰레기가 날리고 있었다. 비

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자기쓰레기를 담아서 슬쩍 군데군데 모아 놓고 그대로 귀가하는 암체족들이 상당히 많았다. 野營場施設을 대폭적으로 개수하고, 특히 야영장소가 좁아서 주변 숲속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취사, 유흥을 함으로 더이상 식생이 훼손되고 山地가 황폐되지 않도록 조속한 이용객 통제 대책이 요망된다. 森林破壞現狀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니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 □ 龍岩門에서 大東門·輔國門간의 城廓 毀損問題

龍岩門에서부터 東將台, 大東門을 지나서 輔國門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區間에서는 登山路가 따로 설치된 것이라기 보다는 城廓 바로 위, 즉 돌城 꼭대기로 길이 나서 城도 많이 훼손되고 城을 築造한 돌이 많이 빠져나가서 부분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높았다. 文化財保護에 대한 등산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시된다. 그리고 동쪽으로 城바로 밑에는 쓰레기가 누적되어 있고, 또 거기서 버너를 키고 취사하는 무분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登山區間에서는 登山路의 路幅이 1~2m 정도로 대단히 협소하고 비탈이 심하여 미끄러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登山路를 따라 걸어가면 西쪽 方向의 城 안쪽 山林景觀만 구경할 수 있고, 東쪽 方向이 우이동, 수유리 멀리까지 아름다운 自然景觀을 구경할 수 없으므로 누구나 城 마루 꼭대기 부분으로 걸어가면서 兩側 景觀을 모두 다 감상하려 하므로, 이 區間에서는 이와같은 등산자의 심리적 요망을 고려하여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등산로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龍岩門부근에서는 40대의 男 雜商人이 정신이상자와 같이 言行을 하고, 고향을 지르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와같은 문란한 잡상인은 出入이 금지되고 退園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北漢山 國立公園內에는 커피, 음료수, 라면 등을 파는 잡상인이 너무도 많이 있으므로 사실상 도시락도 지참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城마루에는 두서너 곳에 최근에 새로 만들어 세워 놓은 안내 간판이 城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자그마한 함석판에 “안내말씀: 이 지역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조상의 유산인 북한산성(사적 162호) 성곽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을 금합니다. 1988. 3. 15 북한산 동부관리소장”이라고 써 있다. 아마 안내판은 그 후 며칠 못가서 통행인에 걸려 쓰러지고 바람에 덩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文化財保護擔當 부서에서 마땅히 규정에 의한 品位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될 것이다. 文化財管理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北漢山城이 심히 훼손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듣자니 漢峯山頂上部의 白鹿潭 湖水가 堆積 埋沒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조사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文化財管理局에서는 이것을 復舊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2년이상이나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檢討期間동안에 山은 점점 더 무너지고 산의 생명이 죽어 간다.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도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 그러나 “신중한 검토후에 완벽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우선 붕괴확대방지를 위한 應急措置는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필자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납득이 안간다. 國立公園管理分野에서 우선 급한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고 해도 文化財分野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다니 이 時點에서 차라리 모든 山林毀損關係(豫防 및 復舊砂防, 土壤保全 等)業務는 山林廳에서 관장하도록 法制化할 必要가 있다고도 생각된다. 본래 山은 山林廳所管인데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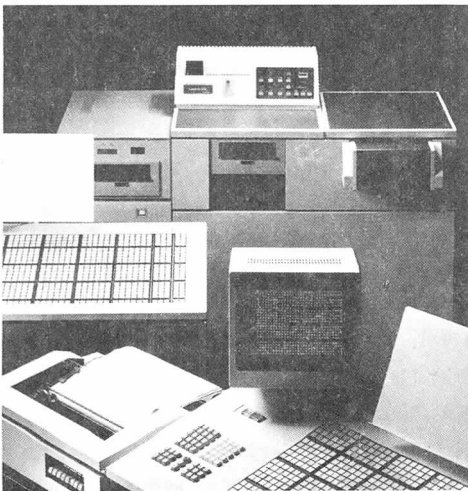
東將台는 山頂上部에 위치하여 四方으로 展望이 아주 좋은 곳이므로 등산객이 많이 모여 쉬어가기도 하고 주위를 觀望도 하여 주위가 심히 훼손되었다. 東將台에서 北漢山莊 720m, 龍岩門 960m, 白雲台 2.35km, 大東門 480m, 大成門 8.37km, 輔國門 0.2km라고 표시되어 있다.

輔國門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 약 50분후에 貞

陵遊園地의 最上流側 중점인 제11호 매점에 도달하게 된다. 貞陵溪谷에는 소위 “자리터”가 무수히 많이 造成되어 있다. 그 위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멋대로 노래를 불러대도 누구하나 관여하지 않는 自由로운 地域이다. 1987年 여름 豪雨때에 冠岳山地域의 道林川 溪谷(新林洞)에 構築되어 있던 溪谷保全用 砂防댐(바닥막이 공작물 포함)은 모조리 파괴 유실되어 버렸지만 貞陵溪谷에 施工된 施設物은 파손되지 아니하고 유원지계곡 자리터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冠岳山 新林洞 溪谷의 工作物은 石工作物로 土石流에 견디내지 못하고 파손유실되었지만 貞陵溪谷에서는 콘크리트工作物로 보다 튼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冠岳山 地域에서는 溪谷工作物에 대한 再檢討가 요망된다.

우리 國民들은 登山을 좋아한다. 특히 大都市 成人들은 건강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登山을 하며 하루를 즐긴다. 올바른 登山은 지정된 登山路를 따라서 조용히 山行을 하는 일이다. 登山路 밖으로 나가서 아무데로나 숲속에 잠입하여 森林植生을 훼손하는 일은 옳지 못한 登山行爲이다. 市民들이 올바른 登山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登山路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の 生態와 森林植生의 生態가 共存할 수 있는 調和스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北漢山 國立公園에서의 登山路 毀損問題를 重要한 課題로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더이상 放置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檢討”만 하고 있어도 안될 것이다.

## (제5출력센터) 모리자와 (삼화양행) 출력



출력 일제(MK110 및 기타 모리자와입력기)  
삼화(MK3300 MK3000 삼화양행입력기)

- 각종 인쇄
- 전산식자
- 편집·도안

총 합 기 획  
273-3496~7